



제7차 세계질적건강연구 학술대회가 한국질적연구센터, 질적연구학회, 이화여대 간호대학과 이화간호대학원에서 주최로 열렸다. 19개국에서 55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질적건강연구 학술대회 서울에서 열려

4차 산업혁명시대, '심층적 데이터' 더욱 중요

인간의 본질과 경험 탐구 위해 다학제 간 협력



GQHR 새 위원장 신경림

GQHR(Global Qualitative Health Research, 세계질적건강연구) 새 위원장으로 신경림 한국질적연구센터 소장(오른쪽)이

주최됐다. 재니스 모스 전 위원장과 함께 자리했다.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한 질

적연구의 대가 재니스 모스(Janice Morse) 미국 유티대 간호대학

교수는 "질적연구의 업적성을 강

화하고, 적용 가능성 및 출판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 메타 맵(meta-map)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면서

"메타 맵은 연구제안서 작성,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 전반에 걸쳐 가이드 역할을 해

준다"고 밝혔다.

마이크 반 매년(Michael van Manen) 캐나다 알버타대 의대 교

수는 기조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는 탐구와

성찰의 대상에 대해 '어떻게 질문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며, 생

생한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는 질

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명숙 동의대 간호학 교수는

'이론과 질적건강연구', 후 안

중국 푸단대 간호대학 교수는 '사전

의료의행사에 대한 질적연구', 신

경립 한국질적연구센터 소장이 '한

국의 질적건강연구' 주제로 기조강

연을 했다. 플리너리 세션에서는

조이스 피츠프트리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간호대학 교수 등이 발표

했다. 커커런트 세션, 폐널토의가

진행됐다.

한영 리셉션에서는 '한국질적연

구센터 20년사' 발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기 학술대회는

2020년 이탈리아에서 열린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공유하며,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한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은 "학문의 목적은 인간 경험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질적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본질을 탐구하고 인간 내면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한 질적연구의 대가 재니스 모스(Janice Morse) 미국 유티대 간호대학 교수는 "질적연구의 업적성을 강화하고, 적용 가능성 및 출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메타 맵(meta-map)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면서

"메타 맵은 연구제안서 작성,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 전반에 걸쳐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고 밝혔다.

마이크 반 매년(Michael van Manen) 캐나다 알버타대 의대 교수는 기조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는 탐구와 성찰의 대상에 대해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며, 생생한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테크놀로지(기술)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과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질적연구가 철학적인 고찰이나 저널에서 읽히지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실무에서 직접 적용되고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리엔 치크 노르웨이 외스트풀 대 교수와 로산나 맥마스터 일본 암마구치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



서울시간호사회 간호사와 함께하는 아가사랑 페스티벌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의 아가사랑 페스티벌'을 6월 19일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후원했다.

페스티벌에서는 모유수유 및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 부스는 상담존, 체험존, 전시존, 이벤트존으로 구성됐으며, 각 부스별로 간호사들이 배치됐다.

상담존에서는 모유수유를 위한

유방마사지 교육, 출산장려 정부 시책 안내 등을 실시했다. 체험존에서는 신생아 돌보기, 텐네벌달 검사, 이유식 및 육아 상담, 영아 심폐소생술, 남성의 임신체험복 입어보기 등이 진행됐다. 전시존에서는 사진전 및 영상전 수상작이 전시됐다. 이벤트존에는 모유수유 퀴즈, 핸드마사지 등이 마련됐다.

페스티벌 현장에는 임신부부터

영유아를 양육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시민들이 찾아와 임신·출산·모유수유·육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갔다.

박인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매년 아가사랑 페스티벌을 열어 예비 부모와 초보 엄마 아빠의 건강한 아기 출산을 돋고, 모유수유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시민 곁에서 건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했으며, 나백주 서울 시 시민건강국장이 축사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영상을 보내왔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서울시간호사회 시민들이 대상으로 실시한 '아가사랑, 행복가득' 사진전 및 영상 전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주혜진 기자 hjo@

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회 간호현장 격려 방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한 간호사들의 모임인 한국 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회(회장 최정자) 회원들이 6월 19~20일 전북지역의 간호현장을 찾아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한국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회는 매년 지역별 간호현장을 찾아 나이팅게일 정신과 가치를 알리고, 후배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최정자 회장과 이화자 부회장을 비롯해 공순구, 안상정, 최경희, 이옥란, 김조자 회원이 참석했다.

정규숙 기자 ksung@



회원들은 전주시에 위치한 예찬GIP홈케어(주) 재가장

을 찾았으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전북간호사회 회관을 방문해 안옥희 회장과 이사들을 만났으며, 간호사회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규숙 기자 ksung@

충남간호사회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 교육

충남간호사회(회장 임미립)는 모유수유 및 출산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주시보건소(5월 15일), 논산시보건소(5월 25일), 천안시 동남구보건소(6월 15일)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109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박

주혜진 기자 hjo@

기본간호학회 '환자안전과 질 향상' 학술대회

한국기본간호학회(회장 정승교)는 2018년 하계학술대회를 '환자안전과 질 향상 - 감염관리 정책과 실무' 주제로 6월 22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엄

증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가 '감염관리의 최근 이슈와 법,

정책' 주제로 강의했다.

엄증식 교수는 "감염관리의 핵심은 간호사 적정인력 확보에 있다"면서 "간호

대학에서부터 감염관리에 대한 총

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

했다.

이어 주시안전, 신종감염병,

직원/환경 감염관리, 카테터 관리

요로감염 등을 주제로 기본간호학

교수자를 위한 감염관리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학회지 투고논문의 질 향상: 연구윤리 제고' 강연, 간호연구논문 포스터 발표 등이 진행됐다.

정승교 회장은 "환자안전과 질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기본간호학 교육과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

2018년도 한국기본간호학회 학술대회

감염관리 정책과 실무

한국기본간호학회

2018년도 한국기본간호학회 학술대회

감염관리 정책과 실무